

한판승의 열정, 백제왕도 익산을 달구다



‘2026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조석기 전북유도회 회장.



‘2026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현장.

한판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과 상대를 향한 예의, 승패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유도의 정신이 백제왕도 익산에서 펼쳐졌다. 전국의 생활체육 유도인들이 익산에 모여 사흘간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눴다. 어린 유도 꿈나무부터 청소년 청년과 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면서 생활체육 유도의 폭넓은 저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2026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와 익산시 체육회, 익산시 유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2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와 심판 임원 학부모 등 수천 명이 익산을 찾으면서 경기장 인파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승자를 가리는 전국대회를 넘어 생활체육 유도의 저변 확대와 세대 간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스포츠행사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유치부부터 장년층까지... 전국 유도인 익산에 집결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 선수들의 폭넓은 연령대다.

개인전에는 유치부와 초등부를 비롯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일반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개인전 참가자는 모두 1,9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자 선수는 1,401명, 여자 선수는 525명으로 나타났다.

어린 선수들은 부모와 지도자의 응원을 받으며 처음으로 전국 규모 대회 무대에 섰고, 청소년 선수들은 전국 각지의 또래 선수들과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성인과 장년층 참가자들은 오랜 시간 수련해 온 유도 실력을 선보이며 생활체육으로서 유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단체전에도 전국 각 지역 유도관과 유도클럽들이 참가했다.

대구와 대전, 울산을 비롯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대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생활체육 유도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남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으로 단체전이 세분화되면서 각 연령대와 성별에 맞는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석기 회장, 60년 유도 경험 바탕으로 전북 유도 발전 이끌어

이번 대회를 공동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의 역할도 눈길을 끌었다.

전북유도회를 이끌고 있는 조석기 회장은 남성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유도와 인연을 맺은 뒤 60여 년 동안 유도와 함께해 온 원로 유도인이다. 남성고등학교 유도부에서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체육계와 유도계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전북 유도 발전에 힘을 보탰다. 2023년에는 유도 공인 8단에 오르며 고단자의 반열에 올랐다.

조 회장은 2025년 1월 제15대 전북특별자치도 유도회장에 취임한 이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전북 유도인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조 회장은 특정 선수의 성적이나 경기 결과보다 유도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의미를 뒀다.

조 회장은 “유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실천하며,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무도”라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유도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 유도의 저변을 더욱 넓히고 전국 유도인들이 우정을 나누며 화합과 교류를 이어가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0여 년간 유도 현장을 경험한 조 회장의 메시지는 이번 대회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선수로 매트 위에 섰던 경험에서부터 유도회



조석기 전북유도회장

의 행정을 이끄는 현재까지, 유도의 발전이 경기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심판, 생활체육인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승패보다 중요한 안전... 심판·지도자 교육도 함께 진행

이번 대회에서 경기력 못지않게 강조된 것은 안전과 공정한 경기 운영이었다.

유도는 선수들이 직접 몸을 맞대고 기술을 겨루는 종목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어린 유도 꿈나무부터 성인과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한 만큼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됐다.

대회에서는 대한유도회의 경기 및 심판 규정, 대회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2026 하계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120여명의 심판과 지도자가 참가해 경기 규정과 심판 실무, 유도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무더운 여름철에 대회가 개최된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무더운 여름철에 대회가 개최된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생활체육이 전문체육의 기반으로... 유도 저변 확대 기대

이번 대회가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생



‘2026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출전 선수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연령 불문 전국 생활체육 유도인 1926명 참가 생활·전문체육 아우른 전국 유도축제로 성황

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결이다.

생활체육은 유도 인구를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다.

어린이가 가까운 유도장에서 처음 유도를 배우고, 청소년기에 전국대회를 경험하며, 이후 전문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은 지역 유도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반대로 전문체육 선수로 활동했던 선수가 은퇴한 뒤 지도자나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돌아와 유도를 계속한다면 유도계 전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선순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유치부와 초등부 선수들은 유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국대회의 경험을 쌓았고, 청소년 선수들은 경기력을 높일 기회를 얻었다.

성인과 장년층은 생활체육을 통해 유도를 지속적으로 즐겼다. 세대가 달라도 유도라는 하나의 종목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대회의 중요한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 역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비롯해 심판, 경기운영, 스포츠공정, 여성체육, 의무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을 운영하며 지역 유도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만 있는 유도대회 아니다... KATA로 유도의 전통과 기술 선보여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적인 유도 경기뿐 아니라 KATA, 즉 유도의 형을 선보이는 본 경연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메치기본과 굽히기본, 부드러운본, 되지기본,

호신의본, 강도관 호신의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유도의 전통적인 기술과 형을 선보였다.

KATA에는 선수부와 생활체육부가 구분돼 참가했으며 전국 각지의 유도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수련해 온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경기 유도와 형의 유도를 함께 선보이면서 참가자들에게 유도의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 유도, 전국대회 통해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

이번 대회는 전북 유도계에도 의미가 크다.

전북유도회가 전국 규모 생활체육 유도대회의 공동 주관단체로 참여하면서 지역 유도계의 운영 역량을 전국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전북지역 선수들에게도 전국 각지의 유도인들과 직접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수많은 유도인이 전북을 찾았다는 점은 지역 유도의 교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매트 위에서는 승부, 매트 밖에서는 화합

유도의 매력은 승부가 끝난 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매트 위에서는 한 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와 인사를 나눈다. 승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패자를 존중하고, 패자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이러한 예의와 절제의 문화는 유도가 오랜 시간 생활체육 종목으로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익산 대회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경기 결과에 웃고 울었고, 지도자와 부모들은 선수들을 격려했다.

성인 동호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흘린 땀의 결실을 확인했고, 전국에서 모인 유도인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

#더 많은 유도인이 전북 유도의 미래

사흘간의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전북 유도의 과제는 이제부터다.

어린 유도 꿈나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유도를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심판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도 계속돼야 한다.

여성 유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령과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유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된 전국적인 유도 인프라와 생활체육 수요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 유도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 경험은 전북의 스포츠 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2026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매트 위의 승부만이 아니다.

어린 선수들은 전국대회라는 새로운 경험을 얻었고, 성인과 장년층 동호인들은 유도를 통해 건강과 우정을 함께 챙겼다.

익산은 전국의 유도인들에게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고, 지역 상권은 대회 참가자들의 발길로 활기를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 역시 전국 규모 대회를 통해 지역 유도계의 역량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가 보여준 것은 유도가 세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생활체육이라는 사실이다.

60여 년 전 남성중학교 유도장에서 시작된 유도인의 인생 역시 이제 개인의 경기 경험을 넘어 지역 유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 유도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수과 지도자, 심판과 동호인, 학부모와 체육 관계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익산 대회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매트 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경기 후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유도의 정신, 그 정신이 어린 꿈나무에서 장년 동호인까지 이어질 때 전북 유도의 미래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오상근 기자